

숨방망이 처벌·허술한 단속 틈타 미성년 티켓다방 다시 ‘고개’

광주 적발 잇따라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강요하는 속칭 ‘티켓 다방’이 허술해진 단속과 숨방망이 처벌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은 4일 다방 10대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유료(35·화순군)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 업주 고모(41)씨 등 2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동구 N호텔에서 차 배달 온 K다방 여종업원 김모(17)양에게 현금 8만원을 준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앞서 지난달 5일과 10일에는 가솔여고생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시킨 다방 업주 김모(여·25·광주시 북구)씨와 조모

(27)씨가 각각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티켓 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치중하면서 단속이 허술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시내에서 영업중인 다방은 844곳. ‘국가 청소년위원회 광주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이하 청소년센터)는 여종업원이 2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6월 말 현재 ▲미성년자 차 배달 15건 ▲불법 영업 등 7건 ▲성매매 4건 등 단속건수가 26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올해 단 한차례도 ‘티켓 다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 단속’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인력을 대거 투입해 업종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허술한 처벌도 ‘티켓 영업’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하기 힘들다.

행적 처분 또한 미성년자 차 배달의 경우 4차례 적발된 뒤에야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성매매는 ▲1차 적발시 4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시 폐쇄된다. 하지만, 1차로 적발된 뒤 1년 지나면 다시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만을 내리고 있다.

청소년 센터 관계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문을 열고 ‘티켓 영업’ 사실을 감추려고 장부를 따로 보관하며, 성매매 지시·티켓(시간) 관리도 업주가 아닌 동료 종업원이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성매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임 김남성 전남지방경찰청장

“도·농별 특성 맞게 범죄 예방 폭력시위·선거사범 등 엄단”

“지역별·시간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전남도민의 민생안정 확보와 경찰 내부 혁신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4일 취임한 김남성(51)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 지역의 농도(農道)인 만큼 농·축산물 절도 예방 등 ‘체감(體感) 치안의 핵(核)인 강·절도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활동 방안을 마련, 도민들의 불안해소를 시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호 활동을 전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나서·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지하면 결국 더 큰 범죄를 불러오는 범죄심리학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언급하면서 “생활주변에 남아 있는 사소한 범죄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불법 폭력 시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김 청장의 다짐. 그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

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 사법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준법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 김 청장은 “일 따로 인사 따로라는 편파와 반칙이 스며들지 않도록 근무강도와 밀도에 따른 철저한 실적 평가를 하겠다”며 투명한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교과 동국대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 서초서장 ▲충남·인천 경찰청 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구름 낀 하늘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되겠다.		7월 5일 (음 5월 21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20~29℃	서울		구름 많음 19~28℃
부산	구름 많음 20~26℃	대구		구름 많음 19~28℃

사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여수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최저/최고	21/25	22/27	21/29	21/27	22/26	21/29

가짜 중 유학생 일부 전화사기 연루 여수출입국사무소 “추가 범행 우려”

허위 유학서류로 한국대학에 입학 후 불법 취업한 ‘가짜 중국인 유학생’(본보 6월19일자 7면)들이 ‘보이스 피싱’(전화사기)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적발된 75명 중 미검자 44명 일부가 전화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달아난 이들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따르면 달아난 가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근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다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도망 친 사실이 확인됐으며, 추가 범행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또 기검거된 31명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경 유학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순천·광양지역 4개 대학 관계자들은 최근 조사에서 “입국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비만 관리 하세요”

광주시 남구보건소 직원들이 4일 효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도 조사 및 체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남구보건소는 관내 초등학교들의 비만관리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에 대한 체성분 분석을 실시, 체지방 분포·복부비만 상태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법 “명예손상 악성 댓글 모욕죄 해당”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그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또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

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서씨는 2005년 11월~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기’란 필명의 글쓴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 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서해와 남해 연안까지 해파리의 활동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파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http://nfrdi.re.kr).

유독성 해파리 3종 서남해안서 발견

이달말 연안까지 진출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해양환경 조사결과 작은부레관해파리와 노무라입깃해파리, 평면해파리 등 3종의 유독성 해파리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작은부레관해파리가 구로시오 난류와 대마 난류를 따라 이동하다 바람의 영향으로 밀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마다 피서객을 괴롭혀 온 노무라입깃해파리도 제주 및 남해 서부, 서해 중남부의 먼바다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이달 말이면 서해와 남해 연안까지 해파

리의 활동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파리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http://nfrdi.re.kr).

/목포=이선성기자 sste@

.....

▲노무라입깃 해파리=독성을 띠고 있으며 완전 성숙하는 9~10월에는 지름 1m·무게 200kg 이상까지 나간다. 해파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거북·쥐치 등의 천적이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해 줄어들었기 때문. 한 번에 1억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해수욕장에서 소일 경우 식초나 알코올로 씻어낸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공인중개사

7월 2일 취득도 가능

목표·약정권리 + 단원문제풀이

광주고시학원

문의: 227-8003 / 229-8111
합격률 94%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7월 2일 [취득도 가능]

합격률 1위!

사유 행정고시학원

문의: 361-8111 / 529-8111

원래가 목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합계요금 반쪽하락

철강난방이 핵심입니다.

TEL: 10621262-0101

(주)태양상사